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 바이오기술, 서울 창업기업에 전수

박원순, 와이즈만연구소와 MOU 바이오 분야 등 보유기술 넘기고 국내 상용화 후 일부 로열티 지불 “창업도시 서울 경쟁력 강화할 것”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6일 오후 17시(현지시간) 텔아비브 시청에서 론 홀다 이 텔아비브 시장과 MOU 체결을 앞두고 면담하고 있다. /서울시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인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가 서울 창업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다.

중동·유럽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 시장은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위치한 와이즈만연구소에서 니엘 자이프만 와이즈만연구소 총장, 이갈 에틀리히 요즈마그룹 회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와이즈만연구소는 바이오 분야 등의 보유 기술을 서울 창업기업에 넘기고, 국내 기업은 기술을 상용화한 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돌려주는 구조다. 기술이전은 와이즈만연구소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기술이전·상용화 전담기구인 ‘에다연구개발’이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요즈마 그룹은 서울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돕는 등 전반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와이즈만연구소는 1934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인 하임 와이즈만이 설립한 과학 연구소 겸 대학이다. 프랑스 파스

퇴르, 독일 막스플랑크 등과 함께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꼽힌다. 37개 연구센터에서 연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연구그룹만 328개에 달한다. 생명과학, 화학, 수학, 컴퓨터 공학 등 분야에서 2000개 이상의 패밀리 특허를 배출했다.

요즈마그룹은 전 이스라엘 경제부 소속

수석과학관인 이갈 에틀리히가 세운 투자 회사다. 이갈 에틀리히는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기반으로 평가받는 모태펀드인 ‘요즈마펀드’의 출범을 이끈 인물이다.

박 시장은 와이즈만연구소가 보유한 대기질 측정 기술과 함께 석탄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제거 기술을 소개한다. 탈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과 폐수를 크게 줄이고 황 성분을 회수해 연료로 사용하는 실용적인 기술이다. 국내 미세먼지 최대 단일 배출원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전국에 총 60기가 가동 중이다.

협약식 전후로 박 시장은 와이즈만연구소의 주요 시설들을 사찰하며 기초과학,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이스라엘의 혁신기관과 협력을 모색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경제의 도약을 위해 혁신창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그 성패는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데 달려있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세계적 창업국가인 이스라엘의 혁신 주체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창업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바이오기업 인큐베이터 ‘퓨처엑스’도 방문해 흥릉 서울바이오허브와의 협력을 타진했다. 또 에틀리히 요즈마 회장, 블록체인 기업 ‘오브스’의 유리엘 펠레드 대표, 사이버보안업체를 창업한 타미르 파르도 전 모사드 국장 등 창업 생태계 주요 인사들과 오·만찬을 하며 창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민 절반이상 소득 300만원 미만

‘2018 서울서베이’ 발표

60% 직업보유, 10년전비 6.8%p↑ 20%가 소득 200~250만원 ‘최다’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한달에 300만원 미만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18 서울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서울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4만2991명의 내국인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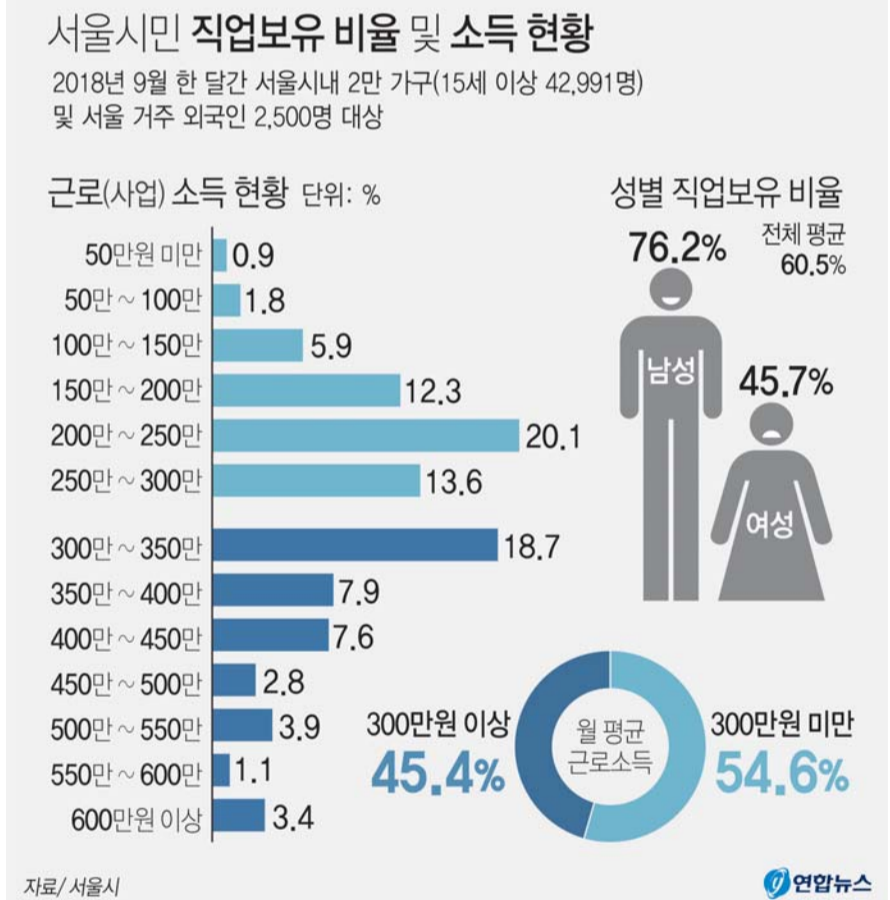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근로 소득은 절반이상(54.6%)이 300만원 미만이었다. 구간별로 200~250만원(20.1%)을 버는 시민이 가장 많았다. 이어 250만~300만원(13.6%), 150만~200만원(12.3%), 100만~150만원(5.9%) 순이었다.

직업이 있는 서울시민은 60.5%이며, 이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6.8%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남성은 76.2%, 여성은 45.7%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2.2%, 40대는 80.1%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이상 76.0%, 대졸의 71.1%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 유형별로 화이트칼라(54.8%), 블루칼라(34.0%), 관리/전문직(11.0%) 순이었다. 직업인의 고용 형태는 상용근로자(72.9%), 임시 및 일용근로자(11.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9.8%)로 조사됐다.

업종 종사 기간은 평균 9년 3개월이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26분이며, 절반이 넘는 57.9%가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했다.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18.7%나 됐다.

직장인의 2명 중 1명(50.4%)은 현재 살고 있는 자치구내로, 43.4%는 다른



지역으로 통근했다. 평균 출근 시간은 34분이었다. 상용근로자(37분)가 가장 길고 무급가족종사자(20분)가 가장 짧았다. 통근 수단은 승용차(26.7%)가 가장 많았다. 버스(24.1%), 버스+지하철(18.3%), 도보(14.8%)가 뒤를 이었다. 직업 만족도는 6.02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으로 조사됐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6.64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5.15점)가 가장 낮았다.

직업인의 사회생활 행복지수는 7.03점으로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7.13점), 상용근로자(7.10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6.85점) 순이었다. 전체의 절반 이상(55.5%)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무급가족종사자(62.1%)가 가장 높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55.5%)가 가장 낮았다.

직업인 가구의 집안 일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가 60.3%로 가장 많았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33.2%)와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32.4%)에서는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상용근로자(18.2%)는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변화와 사회적 관심사, 시민의식 등을 조사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생산하는 통계”라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원자료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에 공개해 기업활동, 정책연구, 학술연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청량리 경동시장 보행로 안전 찾는다

서울시, 사고다발 7곳 개선사업

지난3년간 서울에서 노인보행사고가 가장 많았던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 보행로’가 안전한 길로 변신한다. 차량과 상가 물건, 이용객이 뒤엉켜 걷기 불편했던 길의 차량과 보행자 공간이 분리된다. 서울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보행사고 방지 특별대책으로 추진한 보행사고 다발지점 7곳에 대한 개선사업의 기본설계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로는 횡단 보도와 마을버스 정류소 주변에 대기공간이 설치된다. 그동안 교통량과 보행량이 많음에도 도로 폭이 10m 내외로 좁아 사고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 인근 교통섬은 우회전 차량이 사라진다. 코너를 도는 차량들이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개선공사를 실시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주차난 해소’ 자투리 주차장 28곳 조성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경기도가 구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래된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천과 구리 등 20개 시군 28개 사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7일 경기도는 사업 공모에 참여한 25개 시군 54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 현장, 종합검토 등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고 이날 최종 대상사업지를 선정했다.

도는 형태에 따라 ‘자투리’, ‘공유’, ‘공영’ 등 3가지로 나눠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투리주차장’은 시군이 구도심 지역 노후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설치비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등 7개 시군 23개소(7개 사업)에 도비 12억을 지원, 18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28개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에 2,243면의 주차공간이 새로 생기고 484면의 주차장이 무료 개방 돼 주차난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주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서해안 지역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에 착수해 2달간 해수 38건, 갯벌 33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지난달 29일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지역 해수 3건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명 안팎의 환자에서 발생해 절반 가까이 사망(치사율 50%)하는 제3군 법정감염병이다. 주로 온도가 상승하는 5~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와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